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전망 고찰*

허 성 태** · 임 영 언***

(e-mail: moscow111@hanmail.net · yimye@han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일본대학 내 한국어 및 한국학 전문교육기관
개설 현황분석 |
| 2. 기존연구를 통해 본 일본지역 내 한국학
개설 현황 및 관련 학회 | 3.1 한국어 전문교육기관 현황
3.2 일본 주요 대학 한국학 전문교육기관 현황 |
| | 4. 결론 및 시사점 |

키워드 : 韓國學(Koreanology)、天理大學(TENRI University)、朝鮮學報 (Chosunhakbo)、글로벌
化(Globalization)、韓流(Korean Wave)

1. 서론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웃나라이지만 정식으로 상호 이해를 돕는 고등교육기관 설치에는 미온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한일 상호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한류와 혐한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일본에서 한일 상호 간의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일본학’에 대한 적극성 못지않게 일본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학을 취급하는 일본 고등교육기관이 조금 증가하기는 했지만 몇몇 일본 대학 내 외국어대학과 해방이전부터 존재하고 있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5665).

** 조선대학교 러시아어과 조교수(제1저자).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교신저자).

던 몇몇의 조선어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외국어전문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기관은 도쿄(東京)외국어대학, 오사카(大阪)외국대학, 칸다(神田)외국어대학 등에 한국학 관련 강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 일반대학에는 큐슈(九州)대학, 도야마(富山)대학, 천리(天理)대학, 구마모토(熊本)학원대학 등에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지나지 않는다. 이들 대학 가운데 한국학 관련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3개 대학 정도이고 연구자나 후학양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한국학이란 대부분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언급이고 기타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한국학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 역사문화 전공에 정도된 측면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학의 글로벌적 추세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소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대학들이 일본학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대학 내 한국학 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향후 21세기 한일 간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한국학 관련 학과와 교육기관들이 일본에서 개설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마찰에 의해 여전히 과거의 정체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학은 한일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사회적 배경으로 2004년 이후 일본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붐으로 기존의 한일관계와 그동안 전개된 정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지만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한류붐은 일시적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일본 내 혐한류에 의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더욱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일본 내 ‘혐한류’의 등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일 상호 간의 근본적인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없이는 한일관계의 발전적 관계는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 내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4년 한류붐 이후 여러 대학이 제2외국어로 지정해 왔다. 이로 인해 일본대학에서 한국관련 강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의 인기도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일본정부는 한국학 관련 과목을 입시에서 점차 제외시켜 왔으며 대학 입시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일본 학과정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소수의 대학만이 한국어나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거나 강좌가 개설되어도 인력부족 및 도서부족, 시설미비 등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정부의 일본 내 한국학 활성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역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한국학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학 연구과제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를 통해 본 일본지역 한국학 개설 현황 및 관련 학회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되어 온 한국어 및 한국학 개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한국학 개설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관심 있는 일본 내 한국학자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이들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점들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자인 아사쿠라 도시오(朝倉敏夫, 2013)는 ‘일본에 있어서 한국학의 상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연구는 언뜻 연구주제를 보면 일본 내 한국학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 내 인류학분야의 한국학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인류학분야 한국학 주제의 변천사에 대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사회연구에서 다양한 주제로의 전환, 1970년대 민속학 분야에서 무속연구로의 발전, 물질문화 연구와 기층문화론 연구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류학분야의 일본 내 한국학의 연구동향을 고찰하여 인류학 학설사 연구, 번역, 인간관계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¹⁾.

1) 아사쿠라 도시오(2013) 「일본문화인류학에서 한국학의 상황과 전망 : 제2세대의 Memorandum(비망록)」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1-13.

다음은 히로세 테이조(広瀬貞三, 2010)의 한국학 관련 연구로 일본에서 한국학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학회활동을 중심으로 일본 내 한국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내 한국학 연구는 처음에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주도해왔지만, 점차 이들 문화인류학자들보다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간 학제적 융합연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북한관련 연구는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한국학의 연구분야는 역사학, 민족학·민속학, 언어학분야가 대부분이고, 시대적 대상으로는 근·현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학 관련 연구자가 많은 대학은 도쿄(東京)대학, 큐슈(九州)대학, 게이오(慶応)대학으로 일본에서 2006년 시점에서 한국학을 전공과정과 전공코스로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15개 대학으로 한국학 연구자의 숫자는 2007년에 대략 800명 정도로 예상하였다²⁾.

다음은 한국학보다는 한국어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자로는 김석자·고혜선(2006)의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권현주(2005)의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조사연구”, 후지모토(藤本, 1997)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 현황”, 간노 히로미(1988)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김석자·고혜선(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기존 한국어 관련 연구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한국학 관련 대학원까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3개 대학이며 한국어과는 7개 대학으로 나머지 대학은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시간강사들이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양성과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³⁾.

오카야마(岡山善一郎, 2005)는 한국문학과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의 발표에서 아시아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위상과

2) 広瀬貞三(2010) 「일본에서 한국학 연구동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5집,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85-105.

3) 김석자·고혜선(2006)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제66집, 한국일본학회, pp.347-348.

실태 파악을 통해 일본 내 한국문학의 실태를 전망한 적이 있다. 그의 연구는 일본 내 한국문학연구의 선구자로서 텐리(天理)대학의 역할, 1970년대 도야마(富山)대학, 1974년 규슈(九州)대학, 1980년대 글로벌화와 한류붐에 의한 칸다(神田)외국어대학의 한국어과 설치 등을 비롯한 일본 내 한국문학연구자 119명, 사학자 410명, 심리학 및 사회학자 349명, 어학자 311명 등 일본 내 한국문학연구자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⁴⁾.

그러면 이들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한국학 관련 내용에 더하여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950년 이후 결성되어 온 일본 내 한국학 관련 학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내 한국학 관련 학회는 구체적으로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조선학회는 1950년에 창립되었으며 텐리(天理)대학이 일본 내 최초로 개설한 조선학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약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텐리(天理)대학은 일본 사립대학으로는 가장 먼저 조선학과를 개설했으며 교내부속연구소와 통합하여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텐리(天理)대학은 1945년 일제식민지 해방이후 한반도에서 귀국한 한국학 연구자들을 교원으로 대거 초빙하여 한국학 연구의 메카이자 확대보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학회의 주요활동은 1949년 학술계간지 ‘조선학보’를 창간하여 한국 관련 역사학, 고고학, 문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관련 우수논문들을 꾸준히 학계에 발표해왔다. 학술대회는 매년 10월 초순에 텐리(天理)대학에서 개최하여 한일교류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⁵⁾.

다음으로 조선사 연구회는 1959년에 창립되었다. 일본에서 한국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학회 중의 하나이다. 학회본부는 관동지역의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내, 부회는 관서(關西)지방의 교토(京都)대학 내에 두고 있다. 학회의 회원 수는 약 450명으로 대학 교수, 연구자, 학생,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술활동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서 매월 개최되는 월례발표회가 있으며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대학원생들의 귀중한 발표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연례학술대회는 매년 10월 중순경 관동(關東)지방과 관서(關西)지방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학술지 발간은 ‘조선사연구회논문’집이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학회 자체적으로 단행본도 발간하고 있다.

4) 日本に於ける韓国文学研究の現況と展望 (2) : <http://m.blog.daum.net/bonita8/12280512>(김색일 2016.06.24.)

5) 吉田光男(2003) 『東京大学韓国学現況』東京大学韓国朝鮮文化研究室, pp.1-4.

<표 1> 한국학 관련 일본지역 전국학회 현황⁶⁾

학회명	창립연도	활동내용
조선학회	1950년	텐리(天理)대학 조선학과 본부, 회원 약 700명 식민지 시기 한국학연구자를 초빙하여 1950년대 한국학 연구의 선구와 중심적 역할 일본 전국 한국학 연구자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1949년 학술지 ‘조선학보’ 창간-역사학, 고고학, 문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관련 우수연구논문 발표 매년 10월 초 텐리(天理)대학에서 연례학술대회 개최
조선사 연구회	1959년	일본에서 한국사 연구자만으로 구성된 학회 본부 관동부회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관서부회 교토(京都)대학. 회원 450명. 교수 및 학생, 초중등학교 교사 및 일반시민 회원, 연례학술대회 매년 10월 중순경 및 매달 정기월례회 개최 학술지 ‘조선사연구회 논문집’ 1년 1회 발간
한국조선문화연구회	2000년 가을	문화인류학,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미술사 등 인문사회계 분야 한국연구자 중심 교육학자와 한국연구자 간의 학제적 연구 회원 150명, 매년 10월 연례학술대회 수시 연구발표회 개최 학술지 ‘한국조선의 사회와 문화’ 창간(2002년)
현대 한국조선학회	2002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론 등 사회과학분야 한국연구자들이 대거 참여 발족 본부 게이오(慶応)대학, 회원 약 250명 대학, 연구기관 연구자, 신문 TV매스컴 관계자 참가 연구발표회 수시 개최 매년 10월 연례정기학술대회 개최 2001년 학술지 창간
코리안 마이노리티 연구회 (구 재일조선인 연구회)	1996년	월례회 및 연구회 개최 학술지 ‘코리안 마이노리티 연구’ 간행
국제고려학회	1990년	1986년 이후 국제학술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매년 1회 학술지 ‘국제고려학’ 간행

다음은 ‘한국조선문화연구회’로 이 학회는 문화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미술사 등 인문사회계열의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2000년 가을에 결성

6) 본 논문의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하여 표로 작성한 것임.

되었다. 특히 이 학회는 학자들의 현장성을 중시하는 한국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활동이 특징이다. 학회 회원 수는 현재 약 150여명 정도로 매년 10월에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연구발표회를 개설하고 있다. 이 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는 2002년 10월 ‘한국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한국조선학회’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론 등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한국관련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 가을에 결성되었다. 학회 본부는 게이오(慶応)대학 내에 두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250명 정도이다.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은 대학교수, 연구자, 매스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회활동은 수시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 연례학술대회 개최 및 2001년부터 학술지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 한국학 관련 연구 현황은 한국학과 한국어로 분리되어 전개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내 한국학의 원조는 한국 식민지 연구의 영향을 받은 인류학과 역사학이고 텐리(天理)대학 한국어과가 개설된 이후 학회가 개설되었으며 이를 통한 한국학의 면모가 계승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2004년 한류붐 이후 한국어학과가 대폭 증가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3. 일본대학 내 한국어 및 한국학 전문교육기관 개설 현황분석

3.1. 한국어 전문교육 기관 현황

일본전국 교육기관에서 한국학 관련 전문교육기관은 도쿄(東京)외국어대학,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 규슈(九州)대학, 도야마(富山)대학, 텐리(天理)대학, 칸다(神田)외국어대학, 구마모토(熊本)학원대학 등 7개 대학으로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도쿄(東京)외국어대학, 오사카(大阪)외국대학, 규슈(九州)대학 등 3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東京)대학은 한국조선문화연구실에서 한국학 연구와 교양학부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일본 내 한국어과목 개설학교 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수

업 개설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한국어수업 개설교가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 이후 한국어수업 관련 개설학교는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개설 학교수는 전체적으로는 사립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비율적으로 국립학교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일본 4년제 대학 한국어 개설학교 수 추이⁷⁾

연도	사립		국립		공립		4년제 전체	
	학교 수	한국어 개설교	학교 수	한국어 개설교	학교 수	한국어 개설교	학교수	한국어 개설교
1995년	415	100 (24.1)	98	25 (25.5)	52	18 (34.6)	565	143 (25.3)
2000년	478	187 (39.1)	99	46 (46.5)	72	30 (41.7)	649	263 (40.5)
2001년	496	204 (41.1)	99	49 (49.5)	74	32 (43.2)	669	285 (42.6)
2002년	512	234 (45.7)	99	58 (58.6)	75	30 (40.0)	686	322 (46.9)
2003년	526	243 (46.2)	100	58 (58.0)	76	34 (44.7)	702	335 (47.7)

일본에서 한국학 전문교육기관은 7개 대학 및 도쿄(東京)대학으로 기타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취급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내 4년제 대학에서 일본학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 50%에 달한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일본에서의 한국학 교육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한일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은 것은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에 매우 부정적인 면을 시사하고 있다.

3.2. 일본 주요 대학 한국학 전문교육 기관 현황

3.2.1. 도쿄(東京)대학 한국학

도쿄(東京)대학에서 조선연구와 교육은 일제식민지 시기인 1916년경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도쿄(東京)대학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의 선구적인 역할

7) 앞의 논문, 김석자 고혜선(2006), pp.334-335.

을 담당했다. 1960년경부터 도쿄대학 내 교양학부와 문학부에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당시 조선어를 정식과목으로 설치한 대학이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이나 텐리(天理)대학 밖에 없었던 시기로 일본 내 최고 권위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였다. 1988년부터 한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필수과목으로 정식 채택되었으며 2002년 인문사회계 연구과에 한국조선문화연구 전공을 개설하였다. 도쿄(東京)대학 한국조선문화 연구과정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와 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연구 과정에서는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양성, 연구기관, 국제교류문화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한일문화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표 3> 일본 대학 내 한국학 관련 현황⁸⁾

대학교	창립 연도	주요 내용
도쿄대학(東京大学大学院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	1960년	조선어 과목 개설 1988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 채택 2002년 인문사회계연구과에 한국조선문화연구 전공 개설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韓国学研究所)	2013년 10월	한국학 연구와 교육진흥 목적 일본 내 한국학 연구 현황조사 등 연구사업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 육성 학부생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 '현대한국 문화강좌', 학술 세미나 개최 지역연구에서 광역 연구로 전환과 한국학 연구개척 현대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현재적 종합적 한국 연구 접근방법 구축 일본사회에 대한 발언력 중점 정책연구 구축
교토대학(京都大学朝鮮·韓国学教育研究ネットワーク)	2004년 8월	교토(京都)대학 미즈오 나오키(水野直樹) 교수 제안으로 발족 조선한국학 관련 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과 연구발전 도모 전학부 한국어 공통과목 등 교육 확충 및 도서자료 정비, 연구자원 개발, 국제교류 등 개선방책 검토 외국인 연구자 교류 심화 등

8) 본 논문의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하여 표로 작성한 것임.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コリア 연구 센터)	2005년	현대 한국조선반도 연구 및 한일관계연구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현대코리아학술연구센터 설립 조선 한국관계 교육교류센터 조선반도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에 열린 센터로서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설립
도시샤대학(同志社 コリア 연구 센터)	2011년 1월	2005년부터 도시샤(同志社)대학 조선반도 연구네트워크 개시 2011년 도시샤(同志社) 코리아연구센터 설립, 교원, 학생, 포닥, 객원교수, 객원연구원 네트워크 형성 교육, 연구, 국제교류 확충 교토(京都)지역, 일본, 동아시아 조선반도 연구 거점 구축
텐리대학(天理大学, 朝鮮学会)	1945년	일본 사립대학으로는 가장 먼저 조선학과 개설부속연구소와 통합하여 한반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실시 한국학연구자를 초빙하여 한국학 연구의 중심이자 메카 역할 담당
도쿄외국어대학(東京外国語大学-朝鮮学・言語学)	1977년	1927년 폐지되었던 조선어학과 부활 1995년 외국어학부 동아시아과정 조선어전공으로 변경, 연구와 교육 병행
큐슈대학(九州大学 韓国 연구 센터)	2000년	아시아태평양 칼리지 운영 한국학국제워크숍 개최 심포지엄, 세미나, 연구회, 강연회 개최
칸다외국어대학(神田外国語大学 韓国語学科)	1987년	1987년 개교와 동시에 한국어과 설립 한국어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대학 대학원 과정은 없음

3.2.2. 와세다(早稲田)대학 코리아 연구센터

와세다(早稲田) 대학 코리아 연구 에듀케이션 센터의 취지 및 개요는 유사 이래 한반도에서 전개되어 온 한국역사와 문화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한 역사의 여정에서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고학, 역사, 문학, 전통문화, 현대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접근하는 연구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 유적 유물, 문헌사료, 문학작품, 민속, 영화, 음악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한국,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연결을 통하여 타자로서 대하면서도 이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세계 중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까지 대상으

로 삼아 가깝고도 먼 곳까지 코리안 연구를 확대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센터의 교육방법의 특징 및 방침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듀케이션센터나 각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조선어 학습과 관련지어 먼저 현대 한국조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전문 연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력배양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글로벌 에듀케이션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연습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각종 강연회, 견학회를 개최하여 만남과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름에는 한국 연수여행, 12월에는 한국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현장학습도 시행하고 있다.

와세다(早稲田) 대학 글로벌 에듀케이션센터의 과정모델은 글로벌 에듀케이션센터나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초급, 중급 등의 한국어를 수강하면서(8단위), 먼저 코어과목의 6과목 중에서 반기 2과목을 이수하고(4단위), 선택과목으로부터 글로벌 에듀케이션센터에 개강되어 있는 연습을 반기 4코마(8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에 필요한 단위이수를 취득할 수 있다.

글로벌 에듀케이션센터의 이수과목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어과목 현대한국북한연구입문 2단위 + 조선문학과 영상(입문) 2단위, 해외재일코리안을 생각한다. 2단위 + 지역연구(한국)2단위-8단위. 선택과목(어학과목)>한국어(초급) + 한국어(중급)등-8단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와세다(早稲田) 대학은 2003년부터 한국학연구소를 개설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일협정 5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지역협력, 일본 내 한국학 연구 현황조사 등 연구사업 실시와 동시에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 육성, 학부생 및 일반 시민들 대상의 '현대한국 문화강좌',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연구소장에는 이종원 교수(국제정치학 전공), 부소장에는 이성시 교수(조선사 전공)가 맡고 있으며 한일관계를 넘어선 글로벌한 국제 관계의 맥락 속에서 한국학 연구를 지향하고 정책과 역사 연구를 균형 있게 병행하고, 연구성과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와세다(早稲田)대학은 도쿄(東京)대학, 게이오(慶応)대학 등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학 연구기관을 설치하였으며 한국과 관련한 인적·조직적 인프라가 매우 탄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약 5만 8,000명에 달하는 재학생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약 1,100명에 달하고, 2007년부터 전체 학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副)전공 과정으로 '코리아연구'를 개설하고 있다. 거기에서 연평균 2,000명이 이수하는 한국어 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일본 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약한

전후(戰後)세대가 일본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최근 한일관계 전반이 바뀌면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환기 일본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과 균형감각을 갖춘 연구자 양성 및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매년 연례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⁹⁾.

3.2.3. 교토(京都)대학 조선·한국학 교육연구 네트워크¹⁰⁾

교토(京都)대학 조선한국학은 2004년 8월 교토(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소속인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교수에 의해 '교토(京都)대학 조선한국학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되어 같은 해 9월에 발족되었다. 설립 취지는 분산되어 있는 조선한국학과 관련된 교수네트워크 구축하고 교육연구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토(京都)대학 한국학은 전학과 공통과목으로 한국어 교육의 확충, 도서자료의 정비, 연구자원의 개발, 국제교류 등을 통한 교육의 개선방책 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목적은 일본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자와 교수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자료의 정비나 수업이 상호 연락도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는데 있다. 또한 최근 조선한국학 관련 교육연구의 확충, 심화에 대한 요청이 학생들의 수요측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한국학(인문사회과학분야) 관련 교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기반의 확충, 외국인 연구자와의 교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교토대학의 주요 계획으로는 한국학 교육측면에서 입문과정의 전학년 공통과목의 운영, 어학교육 개선, 학생용 도서정비 등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토(京都)대학에 축적된 연구자원 개발을 위한 자료의 실태조사, 자료DB화 준비작업, 조선한국학 추진에 불가결한 기초적 문헌자료 등도 정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 관련 수업이나 강연회, 연구회, 연구자료 등에 관한 정보제공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 원생, 외국인연구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토(京都)대학은 조선한국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교토(京都)대학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외국 연구자, 교토(京都)대학 소장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연구자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

9) 연합뉴스, (2013.09.30.)

10) 교토대학 조선한국 교육연구네트워크: <http://www.zinbun.kyoto-u.ac.jp/~ksnet/j/j02.html>(검색일 2016.06.14.)

고 있다.

교토(京都)대학 한국학의 특징은 담당교수가 소속부국을 넘어 교토대학에서 조선한국학의 확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일본 유수의 관련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각 부국이 수용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자와의 교류를 전학교적으로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 4> 교토(京都)대학 조선한국학 입문과정 커리큘럼(2011년도)¹¹⁾

과목명	조선한국학 입문
과목명 영역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수업담당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미즈노 나오키 인간환경학연구과 준교수 문학연구과 조교수 요시이 히데오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야기 타케시 경제학연구과 교수 호리 가즈오 인간환경학연구과 교수 니시가키 야스히코
수업형태	릴레이 강의
수업테마 및 목적	조선반도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기 위해 담당교수가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토픽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야기한다. 조선한국에 관한 교양적인 지식과 문화역사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수업계획과 내용	담당교수가 다음 테마로 2-3회 수업을 수행한다. 오구라 기조 조선한국학의 언어 요시이 히데오 식민지배와 조선 일본의 고고학 야기 타케시 조선전근대에 있어서 민족의식의 전개-고구려와 고려 니시가키 야스히코 조선의 주거지-그 역사와 사상 미즈노 나오키 조선인의 이름과 그 역사-일본지배기를 중심으로 호리 가즈오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한국조선 식민지 해방으로부터 NICs, NIEs로

3.2.4.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 코리아 연구센터¹²⁾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코리아 연구센터의 설립 취지는 “한반도가 세계적인

11) 교토대학 조선한국학: <http://www.zinbun.kyoto-u.ac.jp/~ksnet/j/j03.html>(검색일2016.06.14.)

12)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코리아연구센터: <http://ricks2005.com/>(검색일2016.06.14.)

로 주목받는 곳으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중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온 것에 착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일관계도 과거 적대관계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심각한 문제도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긴밀한 발전이 양국관계에 불가결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해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공동체라는 미래의 전망에서 한일관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은 법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1998년 이후 과학연구비 보조를 받아 ‘현대한국의 민주화와 정치구조의 법사회학적 연구’ 등 한국의 탁월한 연구자들과 대형 공동연구를 수년간 진행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현대한국연구를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연관 속에서 수행해 왔다. 2005년 6월 현대한국조선반도연구 및 한일관계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긴급성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현대코리아학술연구센터, 조선한국관계 교육교류센터, 조선반도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에 열린 센터로서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코리아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표 5>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한국학 주요사업¹³⁾

<p>◇ 프로젝트 연구사업 21세기 동북아시아시대 구상 연구 현대한국의 법과 정치 연구 현대한국의 미디어와 문화연구 한일역사인식, 한일관계사 연구 재외코리아 연구 R-GIRO연구프로그램</p>	<p>◇ 국제연구사업 국제심포지엄, 한일공동연구회 실시 연구교류협정기관과의 공동연구 공동사업 실시 정례연구회 개최 한국학 관련 수탁연구</p>
<p>◇ 아카데미 네트워크 추진사업 국제연구 네트워크 유지, 강화, 확대 교환연구자제도, 해외연구자 초청 실시 일본에서 한국연구관계 자료와 정보제공</p>	<p>◇ 젊은 연구자 육성 사업 한국관련 젊은 연구자 국제포럼 개최 교토 코리아학 연구기관에 의한 컨소시엄 사업</p>

코리아 연구센터의 목표와 기본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리아 연구센터는 현대코리아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종합연구센터, 차세대 연구자 양성에 중점을 둔 한일학술 및 교육 교류의 기본 거점구축, 현대코리아 연구의

13) 논문의 본문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일본 및 동북아시아에서 아카데미 네트워크 거점구축, 일본에서 한국연구 관련 자료와 정보축적센터, 일본에서 한국교육 및 한국문화이해 지원거점, 현대코리아 이해를 확장하는 지역사회에 열린 센터 등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과정의 커리큘럼 사례로 한국어과정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립 도쿄(東京)외국어대학과 가장 늦게 개설한 사립 칸다(神田)외국어대학의 개설과목 및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두 대학의 특징은 도쿄(東京)외국어대학의 경우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문학, 시, 소설, 역사 등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습득이나 연구보다는 동아시아 속의 한국역사문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도쿄(東京)외국어대학과 칸다(神田)외국어대학 한국학 개설과목 비교¹⁴⁾

도쿄(東京)외국어대학	칸다(神田)외국어대학
학부 수업체계는 언어과목, 지역과목, 전수과목으로 구분 동아시아지역 언어론(북한의 언어 정책) 동아시아지역 문화론(한국현대문학, 북한의 문학, 한국의 문화와 사회, 한국 근세사 개설, 한국현대사회론 등) 아시아언어연구(중세한국어문헌강독, 한국서지학 등) 아시아문화론(동아시아도서부연구 등) 아시아문학(한반도의 문화, 한국고전문학사, 한국미술사 등) 아시아지역연구(한국종교와 사회, 근대 한국 국가와 사회, 한국현대사 연습, 한국 공업화와 사회문화변용)	한국어기초 한국어구두표현 한일통역법 일한통역법 한일번역법 일한번역법 시사한국어 한국어대화문 언어연구(한국어학, 한국어문법, 한국어사회언어학, 한국어문자론, 한국어의미론 등) 비교문화연구(한국문화개론, 한국문화특정연구, 한국언어문화개론, 한국문학사, 한국어원서독해, 한국현대문학연구 등) 지역국제연구(한국정치경제, 한국사개론, 한국근대사, 한국사특강, 고대일한관계사, 중세일한 관계사 등)

그러나 칸다(神田)외국어대학의 경우 도쿄(東京)외국어대학이 북한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 한일통번역,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대학으로는 도쿄(東京)외국대학(중등1종),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중등1종), 후쿠오카(福岡)대학(중등

14) 앞의 논문, 김석자·고혜선(2006), pp.341-342의 내용을 근거로 필자작성.

1종), 칸다(神田)외국어대학(고등1종), 도쿄성덕(東京聖徳)대학(중등1종), 구마모토(熊本)학원대학(고등1종), 텐리(天理)대학(중등1종) 등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한국학 관련 대학원까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도쿄(東京)외국어대학,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 큐슈(九州)대학 등 3개 대학으로 한국어 과목의 명칭도 한일관계, 북일관계 등을 감안하여 한국어, 조선어, 한국조선어, 코리아어 등 한국과 북한의 지지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일관계의 악화로 한국어 명칭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학의 연구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과제와 발전방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한국의 다수 대학들이 일본학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여전히 소수 대학만이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에서의 한국학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내 한국학 연구 상황은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이 따로 분리되어 발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내 한국학의 원조는 일제식민지 연구의 영향을 받은 인류학과 역사학자들이고 1950년 텐리(天理)대학 한국어과 개설 이후 한국 관련 연구의 발전, 그리고 2004년 한류붐 이후 한국어학과의 대폭 증가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한국학은 1945년 전후로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1945년 이후 한국어 교육, 2000년대 이후 한류붐과 더불어 한국학은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에서 한국학 관련 학회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950년 이후 텐리(天理)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관련 학회가 결성되어 연례학술대회, 연구회, 세미나개최, 학술지 발간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45년 식민지 해방이후 초창기 한국학의 창시자들은 한반도에서 귀국한 식민지기 역사학과 문화인류학 연구자들이 대학에 대거 교원으로 초빙되어 한국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 내 한국학 관련 전문교육기관은 도쿄(東京)외국어대학, 오사카(大

阪)외국어대학, 규슈(九州)대학, 도야마(富山)대학, 텐리(天理)대학, 칸다(神田)외국어대학, 구마모토(熊本) 학원대학 등 7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박사과정도 개설되어 있는 곳은 도쿄(東京)외국어대학,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 규슈(九州)대학 등 3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한국학의 태동은 해방이후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역사와는 반대로 한국학의 발전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에서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글로벌시대 한국학의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국학은 문화인류학자가 중심이 되었지만,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인 한국학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반면 이전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던 북한학 연구는 점차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한국학 연구자 수는 2007년 약 800명 정도로 연구분야는 역사학, 민족학·민속학, 언어학분야가 많았고, 시대적 연구대상은 근현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 연구자가 많은 대학은 도쿄(東京)대학, 규슈(九州)대학, 게이오(慶應)대학 순으로 많았다. 한국학 관련 학회는 1950년에 창설된 조선학회, 2000년에 창설된 현대한국조선학회가 가장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이후 일본 내 한국학을 전공과정 코스로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15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학 분야의 학회활동을 살펴보면, 역사학은 조선사연구회(1959년 창설)와 일본식민지연구회(1986년 창설)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인류학은 한국조선문화연구회(1999년 창설), 언어학은 조선어연구회(1983년 창설)와 조선어교육연구회(1998년 창설)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학연구는 독자적인 학회가 없지만, 문학연구와 번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국학의 정치·경제·사회학 분야는 전술한 현대한국조선학회가 중심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는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북한학 연구는 점차 쇠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한국학은 195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 출신 학자, 연구자 및 한국출신 교수에 의해 한국학이 발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학의 개념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등 한반도 전반에 걸친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학문적 정의와 개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류붐과 더불어 한국어 개설 대학이 증가해왔으며 한국어강좌의 명칭도 기존의 조선어강좌에서 최근에는 한국어강좌로

전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한국어 및 한국학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하는 새로운 한국학(Korean Studies)의 출현과 글로벌 허브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한국학은 최근까지 식민지기의 연속선상에서 일본학자와 일본 내 재일동포들에 의해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시대 한국학은 일본 내 한류붐과 정부지원정책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일본사회의 혐한류와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한국학 확대와 보급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 일본 내 한국학은 혐한류와 보수주의 성향을 극복하면서 기존 한국어와 역사문화에 경도된 학문분야에서 탈피하여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른 다양화된 형태의 융복합적인 한국학(Korean Studies) 보급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본 대학 내 최근 한국학의 개설상황의 변화를 총론보다는 각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参考文献】

- 김석자·고혜선(2006) 「해의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제66집, 한국일본학회, pp.347-348.
- 문부과학성(2000)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 등 개혁 상황에 관해서』 일본문부과학성.
- 아사쿠라 도시오(2013) 「일본문화인류학에서 한국학의 상황과 전망 : 제2세대의 Memorandum(비망록)」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1-13.
- 이남순(1998)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동서문제연구』 6, 홍익대학교.
- 오구리 아키라(2005) 『일본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일본 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
- 한국교육재단(1996)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재단.
- 広瀬貞三(2010) 「일본에서 한국학 연구동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5집,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85-105.
- 伊藤亜人·杉山晃一(1986) 「東アジア一、朝鮮半島」 『日本の民族学、1964~1983』 弘文堂.
- 伊藤亜人(1996) 「韓国・朝鮮」, ヨーゼフ・クライナー編, 『日本民族学の現在-1980年代から90年代へ』 新曜社.
- 小此木政夫·朴一服部民夫(2005) 「現代韓国朝鮮学会 設立の経緯と第 5 回全国研究大会の紹介」 『アジア経済』 6-7, ジェトロ・アジア経済研究所, pp.62-68.
- 日韓文化交流基金(2007) 『日本における韓国・朝鮮研究者ディレクトリ』 日韓交流基金.
- 吉田光男(2003) 『東京大学韓国学現況』 東京大学韓国朝鮮文化研究室, pp.1-4.
- 古田博司·小倉紀蔵 編(2002) 『韓国学のすべて』 新書館.
- 교토대학 조선한국학 교육연구네트워크: <http://www.zinbun.kyoto-u.ac.jp/~ksnet/j/j02.html>(검색일2016. 6.14.)
- 교토대학 조선한국학: <http://www.zinbun.kyoto-u.ac.jp/~ksnet/j/j03.html>(검색일2016.06.14.)
-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코리아연구센터: <http://ricks2005.com/>(검색일2016.06.14.)

연합뉴스(2013.09.30.)

コリアン・マイノリティ研究: <http://www.white.ap.teacup.com/korminar/>(검색일2016.06.14.)

現代韓国朝鮮学会: <http://www.meijigakuin.ac.jp/acki/front/>(검색일2016.06.12.)

朝鮮史研究会: <http://www.zinbunkyo-to-u.ac.jp/mizna/chosenshi/>(검색일2016.06.11.)

朝鮮語教育研究会: <http://www.homepagel.nifty.com/koreanEducationSoc>(검색일2016.06.13.)

朝鮮語研究会: <http://www.aurora.dti.noma/ken-index01.htm#shok.ai>(검색일2016.06.13.)

日本植民地研究会: <http://www.soc.nii.ac.jp/sjcg/index.html>(검색일2016.06.10.)

日本に於ける韓国文学研究の現況と展望(2): <http://m.blog.daum.net/bonita8/12280512>(검색일2016.06.24.)

韓国・朝鮮文化研究会: <http://www.007/upp.so-net.ne.jp/askc/>(검색일2016.06.14.)

논문 투고 일자 : 2016. 08.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要旨＞

日本における韓国学の研究動向と展望に関する考察

許成泰・林永彦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における韓国学の研究動向を分析し、今後の研究課題と政策的な方向性を探ることである。さらに、韓国学の概念が日本でどのように成立してきたのか、あるいは韓国学登場の歴史的な背景と1950年代以降韓国学の発展過程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研究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第一に、日本における韓国学の研究動向は韓国学と韓国語教育が別々に分離して発展してきたと考えられる。第二に、日本における韓国学関連学会は1950年代前後天理大学を中心に学会が形成され、それ以後いくつかの学会が出現した。第三に、日本で韓国学関連専門教育機関は7大学に開設され、博士課程は3大学に開設されている。第四に、韓国学は1980年代半ば頃から人類学者が中心で行ってきたが、だんだん多様な学問分野の融複合的な韓国学として発展してきた。結論的に韓国学はグローバル化の時代に沿って多様な形態の融複合的な学問としての普及拡大のための新たな政策的な支援が求められていると思われる。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Koreanology and Prospect in Japan

Heo, Song-Tae · Yim, Young-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actual state of the Koreanology progressing in Japan and to examine the research task and prediction. Also it is focusing if how the concept of the Koreanology which begins to be established in Japan and Korean language course and Koreanology had been being developed after 1950 especially.

Four main study results show below. First, in the academic field which the initial Korean and Koreanology relation is various, the Japan Koreanology research appeared in the tendency that it is gradually subdivided. Second, the Koreanology related university was primary organized in Japan TENRI university after 1950 years and it had been being across the country gradually expanded. Third, the Koreanology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the doctor's course 3 universities among 7 universities in Japan. Fourth, the Koreanology researchers started from the historical studies and field of the anthropology in 1945 before and it was gradually diversified in Japan. Fifth, it had been being gradually developed from Japan until the Koreanology conference reached from the TENRI university to Waseda University Koreanology research institute beginning with 'Chosunhakbo' since 1950.

In conclusion, the Koreanology is expecting the appearance of the new change and Koreanology with the Korean wave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in globalization.